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김 준 호* · 김 선 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유형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 및 가해 실태, 생활양식, 비행성향, 주위환경, 폭력에 대한 태도 변인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본 연구결과 10명 중 4명의 응답자가 지난 일 년간 적어도 한 번 이상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에 의한 학교주변 폭력피해된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율은 중학교 남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폭력의 세부유형별 피해율은 금품갈취 21.9%, 폭행 15.5%, 괴롭힘 17.4%로 보고되었다. 학교주변 폭력의 경험유무별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첫 번째 유형(없음)과 세 번째 유형(피해집단)이, 두 번째 유형(가해집단)과 네 번째 유형(피해-가해집단)이 각각 생활양식과 비행성향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 세 번째 유형인 가해집단은 폭력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네 번째 유형인 피해-가해집단은 비행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감독이 가장 소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해집단(제4유형)이 피해집단(제2유형)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가해집단(제3유형)과 유사한 뿐 아니라, 여러 변인에서 가해집단보다도 더 비행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집단(제2유형)은 피해나 가해가 모두 없는 제1유형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을 보여준다.

I. 서 론

학교 주변에서 불량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의 싸움은 비단 요즘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을 갈취 당한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에 이른 사건마저 발생하기에 이르자 학생들이 당하는 범죄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공식통계 자료와 학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를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비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범죄가 집계된 1963년이래 전체범죄에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전후로 그다지 변화가 없었으나 1992년 이후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범죄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흉포화가 청소년범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간주되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살인의 경우에는 약 30%정도이며, 강도와 강간의 50-60%정도가 청소년층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전체범죄의 약 10%정도가 청소년범죄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청소년 강력범죄가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성인에 비하여 약 5배 정도나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청소년비행의 문제점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청소년비행과 맞물리는 학교주변 폭력의 문제는 이미 그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1년에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일년 간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교 남학생은 거의 60%, 고등학교 남학생은 약 50%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남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보다는 적으나 평균 15%의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성비행 피해(가벼운 성추행 포함)를 합하면 남자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상담전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상급생이 후배를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도 신고되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화가 상당히 단순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상담자료를 보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은 소위 “이지메”로서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괴롭히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금품보다는 각종 심부름, 놀림, 구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상담전화를 보면 학교주변 폭력이 초등학생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담전화 발생건수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정된 조사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장시켜 그 피해 실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폭력 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으로 세분화하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구분하여 설명한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에 주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조사는 가해자 중심 조사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피해자학과 피해자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학에 입각한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 주변에서 어떠한 청소년들이 왜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가 된다. 즉 상당수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존 이론을 가해자와 피해자 두 관점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가해자 중심 이론

뉴욕 소재 칼럼비아 대학교의 Merton이 발표한 아노미이론(Merton, 1943)과 시카고 대학의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Sutherland, 1947)을 시작으로 청소년비행 이론은 발전되었다. 그 후 1960년대의 비행 하위문화이론(Cohen, 1955)을 포함한 다양한 하위문화이론(Cloward & Ohlin, 1960)이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Matza의 중화 이론(Matza, 1964), 낙인 이론((Lemert, 1951; Becker, 1963) 등이 발전되었고, 1969년 Hirschi

의 사회유대 이론(Hirschi, 1969)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다양한 이론이 발표는 되었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은 발표되지 않았고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와 새롭게 해석·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범죄이론은 '가난-범죄'라는 전통적인 편견에서 출발하였다.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 역시 왜 가난한 사람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가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조기능론의 대부인 Parsons의 수제자이며 구조기능론을 완성시킨 Merton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가난과 범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Merton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동을 문화구조와 사회구조라는 개념으로 제정리한다. 문화구조(예 : 가치, 규범)는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규정하는 반면에 사회구조(예 : 지위, 역할)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는 문화구조와 사회구조 사이에 괴리가 없으나 안정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두 구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계 서열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를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Merton은 아노미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 즉 부의 축적이라는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물질적 성공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훌륭한 교육을 받아 좋은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물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층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자는 되고 싶으나 부자가 될 합법적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아노미를 체험하게 되며, 그 결과 비합법적 방법으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노미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한편 Sutherland는 가난-범죄 사이의 관계를 Merton보다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여, 가난한 지역에는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이건 일탈적인 것이건 간에 모두 학습된다고 가정한다면, 가난한 지역의 이러한 문화가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범죄의 기술도 물론 학습되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배우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나 태도를 배우게 되는 상황을 Sutherland(1947)는 주로 친밀한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상황은 학습의 장이 아니라고 보았다. 범죄는 친밀한 집단내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가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Cohen(1955)은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 및 비행은 학습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왜 가난한 지역에 하위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을 아노미이론으로 보완하려 하였다.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문화가 지배적인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하기가 힘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행하위문화란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동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문화와는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중산층 문화에서 규율과 준법 정신을 강조한다면, 비행하위문화에서는 범위반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아노미라는 구조적 기회의 불균형이외에 하위문화에서의 비행가치의 습득을 모두 비행의 원인으로 상정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차별접촉이론은 청소년비행의 원인론에 있어 대표적인 고전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각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낙인이론(Lemert, 1951; Becker, 1963)과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이 그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앞에서 제시한 이론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첫째, 이 이론들은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원인론의 입장에 반대한다. 특히 기존의 이론들이 비행소년과 정상소년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 차이를 부정한다. 둘째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의 과정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보다 강조하고 집단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낙인이론은 행위자에 대한 낙인부여가 비행소년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탈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져 되면 그 행위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즉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은 범죄성향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비행소년으로서의 주위의 낙인부여의 차이가 비행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비행소년으로서 낙인이 부여되면 비행소년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비행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통제이론(혹은 사회유대이론)에서 Hirschi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일탈 및 비행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행성향 혹은 비행동기는 비행의 원인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행의 원인보다는 비행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 비행을 안 하게 되는가라는 동조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비행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에의 유대가 그 원인이 된다. 즉 어떠한 개인이 사회에의 유대가 강하면 비행성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비행을 안 하게 되지만 그 유대가 약하게 되면 비행성향을 통제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유대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를 강조한다. 결국 청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이론들을 요약하여 본다면 결국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청소년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가장 거시적인 맥락에서 설명한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위를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성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비행과 범죄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곧 아노미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차별적 접촉이론은 이러한 범죄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열악한 빈민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빈민가에 만연되어 있는 범죄 우호적인 가치를 친밀한 집단 즉 친구들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아 범죄소년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 하위문화 이론은 결국 아노미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일탈을 합리화시켜주는 가치가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Hirsh의 사회통제이론 역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고는 하나, 가정, 친구, 학교 등 전통 사회가치를 전달하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애착 정도가 곧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아주는 통제기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은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으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아노미 이론), 부모와의 관계 역시 열악하고(사회통제이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사회통제이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문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차별적 접촉이론), 일탈가치를 수용하면(하위문화이론) 사소한 비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들이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비행소년이라는 낙인 때문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낙인이론이다.

2. 피해자 중심 이론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병리학적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다. 의학의 대상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가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해자의 어떠한 특성이 범죄에 빠져들게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의 생물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성격적 특성은 물론이며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되었다. 1948년 Hentig 교수의 기념비적 저작이래 피해자학은 범죄학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고, 오늘날에는 가해자 중심 범죄학과 더불어 범죄학의 중요한 분과로 인식되어 다양한 이론이 출현하였다. 피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이건 비난하는 입장이건 간에 피해자학은 범죄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인식 하에서 다음의 4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그 첫째는 범죄와의 근접성으로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가 근접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범죄에 대한 노출이다. 노출이란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한다. 셋째는 표적의 유인성이다. 유인성이란 범죄 가해자가 범죄 대상자를 선택할 때 쉽게 그러나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보석목거리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절도나 강도의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범죄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능력을 들고 있다. 보호능력이란 범죄에 대한 예방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능력과 물리적 능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인 능력은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물리적 능력이란 방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집이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관점에서 현대의 피해자학은 발전되었다. 범죄의 근접성에 기초한 이론은 동일집단 이론과 근접성 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 근접성 이론이 가해자-피해자간의 물리적 거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집단 이론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에도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많은 경우에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힘이 센 악당이고 피해자는 선량하나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범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피해만 당하던 학생이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학생들끼리 어울리다가 싸움이 일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량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학생은 모범생보다는 불량학생인 경우가 더 많다. Sengstock(1982)의 상호작용 이론 역시 사회적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상호작용 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출과 취약성에 기초한 이론은 일상생활 이론과 생활양식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Hindelang(1973)에 의해 발전한 생활양식 이론과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생활 이론은 유인성과 보호능력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밤늦게 다니는 사람,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등은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으며,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잠재적 가해자에게 그만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이 범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이론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공 가능성과 기대되는 보상이 높은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Meier & Miethe 1993).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보호능력을 포함하여 유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학에 기초한 이상의 이론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연구의 표본설계는 지역적 분포와 학교수준,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각각 초등학교는 2학교, 중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3학교, 고등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로 4학교를 선정하여, 총 18개 학교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 이상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조사는 개별면접의 형태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면접의 방법을 취하였다.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44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36부를 제외하고 최종 908부(남학생 449, 여학생 451)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수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수준별 분포

				()안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학생	125 (50.0)	155 (57.8)	169 (44.2)	449 (49.9)
여학생	125 (50.0)	113 (42.2)	213 (55.8)	451 (50.1)
계	250 (27.8)	268 (29.8)	382 (42.4)	900 (100.0)

전체적으로 남자가 49.9%, 여자가 50.1%이며, 초등학교 학생 250명, 중학생 268명, 고등학생 382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교주변 폭력실태의 파악에 하나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피해자를 학생으로 국한하고 또한 가해자의 범주도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

여, 연령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폭력배에 의한 성인범죄나 교사와 부모의 폭력은 제외하고 폭력피해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의 세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학교주변 폭력피해는 ‘지난 일년간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이와는 상관없이 맞은 적이 있거나, 공연히 놀리고, 건드리고, 숙제를 시키는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피해정도는 없다, 한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가해 실태는 금품갈취와 폭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폭력 유형 중 괴롭힘 가해는 피해와는 다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남을 놀리거나 괴롭힌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가해 집단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양식, 비행성향, 주위환경, 폭력에 대한 태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첫째, 생활양식 변인은 ①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밀집여부 ② 등하교시 우범지역 통과 ③ 등하교시 동행자 여부 ④ 용돈의 액수 ⑤ 눈에 튀는 옷차림 ⑥ 저녁 외출 빈도 등의 항목을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등하교시 동행자 없이 우범지역을 통과하고 용돈의 액수는 많으며 평범하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저녁에 외출이 잦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행성향변인은 비행을 저지르는 정도와 일탈적인 생활양식으로 측정하였다. 비행을 저지르는 정도는 기물파괴와 절도인 재산비행과, 갈취와 폭력으로 구성되는 폭력비행, 청소년의 신분에 위반되는 지위비행, 기타 질서비행으로 세분화하여 ‘한 적이 없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탈적인 생활양식은 ‘본인은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까? 폭력씨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등 본인의 비행여부에 관한 항목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주위환경은 가정환경 중 가정의 구조에 해당하는 결손가정 여부와 가정의 수입을 질문하였으며, 가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부모감독을 측정하였으며, 학교 성적과 비행친구 유무를 살펴보았다. 이 중 부모감독 정도는 4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넷째,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폭력전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서의 거부와 긍정적인 태도인 폭력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4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질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폭력에 대한 거부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거부

하도록 평정하였으며, 폭력의 효율성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평정하였다.

3. 연구절차

면접자료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실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각각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작되었는지, 또한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제작한 후 한 달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사의 지시 아래 집단별 조사로 1996년 5월에 진행되었다.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피해-가해” 유형 분석에는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교주변 폭력 피해 실태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은 <표 2>와 같다. 학교주변 폭력은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 세 가지 유형의 폭력 중에서 한 가지라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표 2: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학교주변 폭 력	339 (37.6)	75 (59.5)	48 (38.4)	95 (61.3)	23 (20.4)	71 (42.0)	27 (12.7)	135.01***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전체 응답자의 37.6%가 지난 일 년 동안 학교주변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열 명 중 약 4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에 따른 각 집단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남학생이 61.3%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남학생(59.5%), 고등학교 남학생(42.0%) 순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의 피해율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아, 초등학교 여학생(38.4%)>중학교 여학생(20.4%)>고등학교 여학생(12.7%)순의 피해율 분포를 보인다.

다음 <표 3>은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별 피해율이다.

표 3 :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안은 %

피해유형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금품갈취	197 (21.9)	50 (39.7)	16 (12.8)	64 (41.3)	16 (14.2)	36 (21.3)	15 (7.0)	95.01***
폭 행	140 (15.5)	36 (28.6)	14 (15.2)	35 (22.6)	5 (4.4)	38 (22.5)	7 (3.3)	63.38***
괴 롭 힘	157 (17.4)	36 (28.6)	34 (27.2)	38 (24.5)	9 (8.0)	32 (18.9)	8 (3.8)	59.55***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지난 일년 동안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율은 전체 표본 중의 21.9%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50명을 한 반으로 보았을 때, 한 반에서 약 10여명 정도의 학생이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품갈취에 의한 피해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금품갈취 피해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현격하게 금품갈취 피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등하며 상급생들에 의한 학교주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이 초등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표 3>은 초등학생이 얼마나 학교주변폭력의 피해자가 되는지를 보여 준다.

한편 성별에 따른 피해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금품갈취에 2-3배 가량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해 볼 경우에는 금품갈취 피해율은 중학교 남학생(41.3%)>초등학교 남학생(39.7%)>고등학교 남학생(21.3)>중학교 남학생(14.2%)>초등학교 여학생(12.8%)>고등학교 여학생(7.0%)순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학교수준과 성별은 금품갈취 피해율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 중학교 남학생과 초등학교 남학생의 피해율은 10명당 약 4명이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이며, 동시에 학교주변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폭행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의 15.5%가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어, 50명이 한 반일 때 50명 중 3.2명 꼴로 지난 일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50명당 10여명 꼴로 피해를 입은 금품갈취 피해율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 우려할 만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폭행 피해율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폭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피해율이 다른 집단의 피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행이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면이 열등한 초등학생들이 폭행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의 높은 피해율은 학교주변 폭력의 범위가 이미 초등학교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으로부터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도가 시급한 실정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폭행 피해율을 살펴보면, 역시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폭행을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5내지 7배 가량 폭행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폭행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집단은 초등학교 남학생이며, 중고등학교 남학생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집단과 폭행피해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누군가가 공연히 놀리고, 건드리거나, 숙제를 시키는 등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17.4%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남

녀를 불문하고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피해율을 보여(남학생 : 28.6%, 여학생 : 27.2%), 괴롭힘이라는 유형의 폭력이 초등학교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과 성별을 모두 고려한 여섯 집단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초등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보이며(28.6%), 초등학교 여학생과 중학교 남학생이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고등학교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3.8%). 각 집단과 괴롭힘 피해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p < .001$).

2. 피해와 가해의 교차

1) 유형별 실태

피해와 가해의 교차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제1유형은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유형(피해-가해 없는 집단), 제2유형은 피해 경험만 있는 집단(피해집단), 제3유형은 가해 경험만 있는 집단(가해집단), 제4유형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입은 집단(피해-가해 집단)이다.

표 4: 학교별 · 성별 피해-가해 유형별 실태

()안은 %

	초등학교 남학생	초등학교 여학생	중고등학교 남학생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체
제1유형 (없음)	40 (31.7)	68 (54.4)	120 (37.0)	253 (77.6)	481 (53.4)
제2유형 (피해집단)	47 (37.3)	38 (30.4)	121 (37.3)	44 (13.5)	250 (27.7)
제3유형 (가해집단)	11 (8.7)	9 (7.2)	38 (11.7)	23 (7.1)	81 (9.0)
제4유형 (피해-가해)	28 (22.2)	10 (8.0)	45 (13.9)	6 (1.8)	89 (9.9)
계	126 (14.0)	125 (13.9)	324 (36.0)	326 (36.2)	901 (100.0)

금품갈취와 폭행의 피해를 하나로 묶어, 학교별 · 성별로 피해-가해 유형별 실태를 알아보았다. 중고등학교를 한 범주로 묶은 것은 집단에 따른 커다란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아 해석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표 4>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3.4%가 제1유형(피해와 가해 모두 없는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체 결과는 학교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를 보여,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퍼센트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남학생의 31.7%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37%만이 피해나 가해 경험이 모두 없다고 응답하였다. 역으로 말하면 피해나 가해의 경험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63%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만일 폭행 가해 경험을 “한두 번 있었다”까지 포함시키고 폭력 유형에 “괴롭힘”을 포함시킨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학교주변 폭력이 법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느슨하게 정의되어 사소한 폭력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학교주변 폭력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남학생의 비율이 1/3 정도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우리 나라의 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허용성, 즉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커가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남학생들에게 만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남학생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 중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나 가해 중 하나라도 경험한 학생(204명: 응답자의 약 2/3에 해당함) 중에서 피해만 받은 학생은 121명으로 약 50%에 달한다. 한편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6명이며 이중 가해 경험도 있는 학생은 45명으로 이는 피해 경험 학생의 약 25%에 해당한다. 한편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83명 중 피해 경험도 있는 학생 수는 45명으로 54%에 이르고 있다. 종합하자면 가해자의 1/2이 동시에 피해 경험도 갖고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의 1/4 정도가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유무에 따른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 유형별 특성

유형별 특성 비교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남녀를 한 범주로 묶어 분석·비교하였다. “가해”와 “피해-가해”를 경험한 학생 수가 적고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은 제외하였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남녀를 한데 묶은 이유도 역시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서이다.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나 사전 분석 결과 유형간의

차이가 남녀에게서 발견되지 않아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생활양식 관련 변인, 비행성향 관련 변인, 가정환경과 비행친구를 비롯한 주위 환경 관련 변인,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 변인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의 초점은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이 제2유형(피해집단) 학생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느냐 아니면 제3유형(가해집단) 학생들과 더 유사한가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분석에는 비교적 단순한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변인들간의 일차적인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연구의 수준이 일천하여 복잡한 통계를 적용한 가설의 검증 단계에 이르지 못해 일차적인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유형간의 차이가 대부분 명증적으로 분명하여 사후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생활양식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생

변 인	제1유형 (없 음)	제2유형 (피해집단)	제3유형 (가해집단)	제4유형 (피해-가해집단)	F
학교주변환경	1.53	1.46	1.65	1.66	3.19**
우범 지역	1.18	1.28	1.36	1.33	5.14**
동반 여부	1.78	1.70	1.73	1.68	N.S.
용돈 액수	4.78	4.53	5.82	5.31	7.44***
옷 차 립	5.36	5.49	6.98	6.60	22.69***
저녁 외출	4.73	5.24	6.55	6.44	28.28***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생활양식은 유형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범 죄의 피해-가해 유형은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생활양식과 피해-가해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제1유형(없음)과 제2유형(피해집단)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며, 제3유형(가해집단)과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이 유사한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다.

제1유형(없음)과 제2유형(피해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피해자의 생활양식이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면, 가해와 피해 모두를 경험하지 않은 제1유형(없음)과 피해

만 경험한 제2유형(피해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는 본 연구결과는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사이에는 그다지 강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연하면 학교 주변 폭력 피해를 비롯한 범죄피해는 피해자의 생활 양식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가해만 한 집단인 제3유형과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제4유형 사이에서도 생활양식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차이가 발견되는 집단은 제2유형인 피해집단과 제4유형인 피해-가해집단이다. 즉 학교주변 폭력 피해자에는 상이한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집단은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제1유형과 성격이 유사한 제2유형(피해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제3유형인 가해집단과 성격이 유사한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집단의 숫자가 “피해-가해”집단의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는 피해만을 당하고 있으나, 1/3 가까운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때로는 가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6 : 비행성향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생

변 인	제1유형 (없음)	제2유형 (피해집단)	제3유형 (가해집단)	제4유형 (피해-가해집단)	F
지위 비행	4.06	3.65	11.03	10.41	55.68***
재산 비행	0.53	1.07	2.63	4.00	60.96***
절서 비행	0.28	0.30	1.90	1.80	75.84***
공식 처벌	1.04	1.14	2.11	1.88	45.36***
서클 가입	1.01	1.02	1.14	1.17	N.S.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이러한 결과는 <표 6>의 비행성향 변인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위비행을 비롯한 세 가지 유형의 비행에서도 제1유형·제2유형과 제3유형·제4유형 사이에서 만의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재산비행에 있어서는 제4유형인 “피해-가해” 집단이 제3유형인 “가해” 집단보다도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비행 성향에 있어서는 “피해-가해” 집단이 “가해” 집단보다 덜하

다는 해석을 내릴 수 없다. 공식처벌 경험이 “가해” 집단이 조금 높은 반면, 써클가입은 “피해-가해” 집단이 조금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 7: 주위환경과 피해-가해 유형 : 중·고등학생

	제1유형 (없음)	제2유형 (피해집단)	제3유형 (가해집단)	제4유형 (피해-가해집단)	F
비행 친구	1.45	1.35	2.53	2.70	35.95***
부모 감독	11.58	10.66	8.54	5.45	21.85***
수입	5.68	5.43	5.74	5.21	N.S
결혼	0.90	0.89	0.88	0.84	N.S
성적	3.97	4.92	5.62	6.78	9.36***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표 7>의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 및 비행친구, 성적 등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결과를 유심히 보면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유형에 속하는 피해-가해집단은 비행친구를 사귀는 정도가 “가해”만 하는 제3유형보다도 오히려 조금 높으며, 부모의 감독이 가장 소홀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p<.001). 또한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는 않으나 이 집단의 가정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본인의 학교 성적 역시 가장 나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제3유형(가해집단)에 비해 주위환경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집안은 가난하며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며 비행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고 성적은 나쁜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입에 있어서는 제3유형(가해집단)이 네 집단 중 가장 평균점이 높다는 사실은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가난과 비행 사이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가해 유형과의 관계는 <표 8>과 같다. 우선 부정적 태도(폭력의 부당성)와 긍정적 태도(폭력의 효율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네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제3유형인 가해집단이며, 그 다음으로 제4유형인 피해-가해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는 제3유형(피해-가해집단)이 가장 높으며, 제2유형(피해집단)이 그 다음으로 가해집단인 제3유형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집단(제

3유형)은 폭력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피해-가해집단(제4유형)은 폭력은 좋지는 않으나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피해집단(제2유형)은 나쁘기는 하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집단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폭력 피해에 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 8: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가해 유형 : 중 · 고등학생

	제1유형 (없음)	제2유형 (피해집단)	제3유형 (가해집단)	제4유형 (피해-가해집단)	F
부 정 적	12.43	12.87	10.15	11.56	16.89**
긍 정 적	8.49	9.24	8.91	10.21	6.95***

* p<.05,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원인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려는 목적하에 행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일년 동안 학교 안이나 밖에서 폭력(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7.6%로 열 명 중 약 4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적으며, 중학교 남학생이 61.3%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둘째, 학교주변 폭력의 세부유형별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품갈취는 21.9%, 폭행은 15.5%, 괴롭힘은 17.4%의 피해율이 보고되었다. 이 중 금품갈취 피해율은 중학교 남학생(41.3%)>초등학교 남학생(39.7%)>고등학교 남학생(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행의 경우는 초등학교 남학생(28.6%)>중학교 남학생(22.6%)>고등학교 남학생(22.5%)순의 피해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괴롭힘의 경우는 성별을 떠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학교주변 폭력의 경험유무별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학교주변 폭력의 피

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1/3 정도만이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가 교차되는 비율은 매우 높아 가해자의 1/2이 동시에 피해 경험을 갖고 있고, 피해자의 1/4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양식은 제1유형(없음)과 제2유형(피해집단)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제3유형(가해집단)과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자 중 약 2/3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 나타나, 피해와 가해가 대체로 동일한 토대 속에서 배양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섯째, 비행성향과 피해-가해 유형과의 관계에서도 제1유형·제2유형과 제3유형·제4유형 사이의 집단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제4유형인 피해-가해 집단이 가해집단보다도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정환경의 경우에는 제4유형(피해-가해집단)이 비행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감독이 가장 소홀히 행해지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4유형에 속한 학생들의 주위환경이 양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폭력에 대한 태도는 피해-가해 유형간에 집단차이를 보인다.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제3유형인 가해집단이며, 폭력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인정하는 집단은 제4유형인 피해-가해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주변 폭력의 범위가 초등학교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초등학생은 신체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열등하여 상급생에 의한 금품갈취나 폭행의 피해자로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괴롭힘이라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 만연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다소 등한시되어 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피해-가해집단(제4유형)이 피해집단(제2유형)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가해집단(제3유형)과 유사할 뿐 아니라, 여러 변인에서 가해집단보다도 더 비행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집단(제2유형)은 피해나 가해가 모두 없는 제1유형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주변 폭력의 가해 고리와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가해”집단은 “피해-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며, “피해-가해”집단 역시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피해”집단이 그들의 폭력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피해”집단의 피해는 금품갈취가 많은 반면에 “피해-가해”집단의 피해는 폭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실상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후에도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 져야 할 것이며, 피해-가해 집단으로의 발전과정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Becker, H.(1963). *Outsiders*, New York: Free Press.

Cloward, R. and Ohlin, L.(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Chicago: Free Press.

Cohen, A.(1955). *Delinquent Boys*, Chicago: Free Press.

Cohen, L.E. & Felson, M.(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Hentig, Hnas von(1948), *The Criminal and His Victim*,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7

Hindelang, M.J.(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tion”. *Social Problems*, 20 : 471-87.

Hirschi, T.(1967).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Lemert, E.(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Matza, D.(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Meier, R.F. & Miethe, T.D.(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Michael Tonry, ed.,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17: 459-99

Merton, R.K.(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Sengstock, M.(1982), “Eldery Victims of Crime: A Refinement of Theory in Victimology”, in H.J. Scheider(ed.), *The Victim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Sutherland, E.H.(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ABSTRACT

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in Korea : Its Prevalence and Type

Kim, Joon ho* · Kim, Sun Ae**

This paper explores the prevalence and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overlap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Korea. The sample of the study includes 908 boy and girl students selected from the elementary, the middle and the high schools.

4 out of 10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at least on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 victimization rate of middle school boys was most high. The first type(no-no type) and the third type(victim only)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on the life style and delinquency propensity, while the second type(offending only) and the fourth type(yes-yes type) were found out to be similar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respondents included in the fourth type revealed the relatively poor family backgrounds and manifested the attitude that violence was necessary, while the third type showed the most permissive attitude toward violence. The overlapping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were high enough to conclude that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of the school violence in Korea.

* Korea University

** Nazarene University